

전남도 일자리 창출

‘창조 ICT 프로젝트’ 주목

고용부 경진 최우수, 사회적기업 우수상

혁신도시 이전기관 필요 청년인력 육성

전남도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투자 기업에 필요한 청년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내놓은 ‘창조 ICT(정보통신기술)융합 메이커스 프로젝트’가 호평을 받고 있다. 혁신도시를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30일 “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201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 일자리창출 경진대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발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기업 부문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민선 6기 이낙연 전남지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일자리 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이전기관 및 투자기업에 필요한 청년인력을 매년 500여명씩 육성해 취업·창업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과 지역 내 취직 및 정착할 수 있는 직종을 고려해 ▲공공서비스 ICT융합 인제 430명 ▲조선해양 ICT융합 인제 60명 ▲관광 ICT융합 인제 20명 ▲생태 ICT융합 인제 20명을 기업 수요에 맞도록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27개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 사업성, 실

현성 등을 심사한 결과 5개 자치단체가 본선에 진출해 최종 PT 발표 등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전남도의 ‘창조 ICT융합 메이커스 프로젝트’가 최우수상 영예를 안았다.

경진대회 수상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국비를 지원해 201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는 지난 9월 민선6기 동안 고용률 70% 달성, 취업자수 5만명 증가, 청년일자리 2만개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발표했다. 이어 목표 달성을 위해 이낙연 지사와 도내 청년과의 일자리 토크 콘서트를 추진하고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후속 조치의 하나로 총 160억원(국비 120억원, 지방비 40억원) 규모의 ‘창조 ICT융합 메이커스 프로젝트’ 사업을 기획했다.

이들은 각 분야별로 에너지 시스템 제어, 빅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품질테스트, 3D 프린터 활용, 산업 보안, 레저선박 3차원 설계 전문가 교육 등을 거쳐 전남 발전을 견인할 지역 인재로 활약하게 된다.

우기종 전남도 정부부지사서 시정에서 “전남은 산업기반이 취약해 일자리 창출이 힘들다고 하지만 기회는 위기에서 대부분 빛을 발한다”며 “이번 ICT 중심의 일자리사업 사례처럼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남에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역 균형발전·영호남 화합 섬진강市 만들자”

정의화 국회의원 호남미래포럼서

“호남정신이 이제 통일로 나아가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호남정신이 이제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이하 호남미래포럼) 초청으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 강연에서 “남북분단이 고착화되면 안 되고,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라고 반문한

뒤 “지역 균형발전과 호남을 연계한 남해안 개발과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섬진강시(市)’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그는 남해안 개발과 관련 “내 신념대로, 제가 생각한 지역균형발전의 키는 남해안 개발”이라며 “부산에서 목포까지 얼마나 많은 섬이 있고, 무인도까지 다 하면 1000개가 훨씬 넘어, 목포·무안·신안에 다이아몬드 아일랜드를 개발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또 “섬진강이 영·호남을 잘랐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시가 가져야 할 소중한 자원이 거기에 다 있고, 중심이 될 수 있는 섬진강시를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윤장현 시장 등과 손잡고 광주가 발전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호남 지자체장들과의 협력 의지도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는 한갑수 전 농림부장관, 김정길 전 법무부장관,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 안주섭 전 국가보훈처장,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장관, 문병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우기종 전남남도 정부부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호 상임운영위원은 호남미래포럼 전체 회원을 대표해 영·호남 화합과 호남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감사패를 정 의장에게 증정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낙연 전남지사가 30일 세계 2위 풍력터빈 제조사인 중국 골드윈드와 한국의 (주)DMS간 합작법인설립을 위한 협약을 끌어냈다. 골드윈드는 DMS와 합작법인을 대불산단에 설립할 예정이다. 이 지사가 베이징 매리엇 호텔에서 골드윈드 우강(武綱) 회장, (주)DMS 박용석 대표이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보성 행복택시 인기 ... 하루 이용객 37명

내년 100원으로 낮춰... 화순도 운영

보성군의 행복택시 이용객이 하루 평균 37명에 달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성군은 ‘100원 택시’ 정책을 추진하는 전남도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1200원 요금을 받는 행복택시를 지난 22일부터 운행중이며, 내년부터 요금을 100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30일 전남도와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보성군 행복택시를 이용한 주민은 총 184명에 달하며 운행된 택시는 120대다. 대개 주민 한 명이 택시 한 대를 이용하지만, 2~3명이 한 대에 탑승하는 때도 있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버스 요금인 1200원을 주고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나머지 차액은 예산으로 택시업체에 보전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현재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 달에 1500만원 가량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며

“내년에 36개 마을로 대상을 확대하고 이낙연 지사 공약대로 ‘100원 택시’를 운영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군은 올해 도비 30%, 군비 70%로 부담해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100원 택시’를 운행하면 도 지원비 5000만원 외에는 전액 군이 부담해야 한다.

화순군은 주민들이 읍·면내에서 택시를 이용하면 100원을 내고 읍·면에서 군 소재지로 이동할 때는 승객 1명당 1200원을 지급하는 ‘100원 효도택시’를 운행한다. 승객수에 관계없이 택시 1대를 이용하면 1200원을 내는 보성 행복택시와 달리 3명이 택시 1대에 탑승해 군청까지 갈 경우 3600원을 내야 하는 식이다. 화순군은 다음달 관련 조례가 통과하면 12월부터 ‘100원 효도택시’란 이름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내년에 11개 시·군을 선정해 ‘100원 택시’를 운영할 계획이어서 재정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기자chadol@

도시재생사업 등 현안 모색

전남도, 화순서 도시계획연합회

전남도는 30일부터 이틀간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대한민국·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도시계획연합회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전남도는 도시계획제도 변화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 재생사업 등 현안사항을 함께 고민하며, 도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회째 학회와 공동으로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전남도와 22개 시군 도시계획 업무 담당 공무원과 전남·광주엔지니어링 종사자, 대한민국도·도시계획학회 회원 및 전남도도시계획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제로 청렴 전남’ 실현을 위한 청렴교육과 함께 공동으로 청렴 결의도 다진다.

1부 학술세미나에서 김홍배 대한민국·도시계획학회 부회장이 ‘저탄소 도시 구현을 위한 녹색인증제의 구조와 운영방안’ 기조발표를 하고, 2부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정부 도시정책 및 국토계획법령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티어, 대형제습기
펠릿온풍기, 건조기, 범씨온탕소독기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펠릿 온풍기의 2종
비닐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사무실, 전원주택, 펜션 등

건조기의 2종

원적외선 히터의 11종

대형 제습기의 2종

이동식 에어컨의 11종

범씨 온탕 소독기의 5종

무등산업 (062) 372-7585 시·군 취급점
010-3601-7701 선착순 모집

수시입출금 자신만만자유예탁금

매일 이자 붙는 통장!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쏙쏙!! 재테크의 필수!!

최고 연 2.6%

예금자보호 OK! 각종 수수료면제 OK! 급여통장 OK!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OK! 체크카드 할인·적립혜택 OK!
예금금리우대 적용까지 다 되는 자신만만자유예탁금!!

이자지급 : 300만원이상 금액 단계별 6단계 차등이율 적용
(3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예금자보호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수수료면제 | 수표발행수수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청구송금수수료, sms수수료, 수수료 무료혜택대상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유소사업소 720-2880 월산지점 364-7557